

# 내년 1인 세부담 467만원 … 31만원 늘어



국세수입 179조원 7.6% 증가 … 성장을 5% 전망

근로자 1인당 근소세 212만원 … 올해보다 9만원 ↑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 + 지방세) 부담액이 467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난다.

또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소폭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천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천939억원에 비해 7.6%, 12조7천1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을 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천억원에 달한다.

소득세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기대책을 만들 때 마련한 유가환급금 3조5천억원을 올해 조

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3.2%이지만 감세조치로 1% 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조세부담률 전망 역시 감세가 없었으면 23.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 28.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8조2천억 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9천억원, 29.5%가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17조3 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8천억원,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기대책을 만들 때 마련한 유가환급금 3조5천억원을 올해 조

기지급하기 때문으로 세금을 돌려줌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작아져 내년 세금과 비교할 때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과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에 비해 4.4% 증가한 212만원으로 계산됐다. …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증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2009~2012년에 5.0→5.4→6.0→6.8% 등으로 높아지면서 2012년 국세수입은 212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은 2012년 2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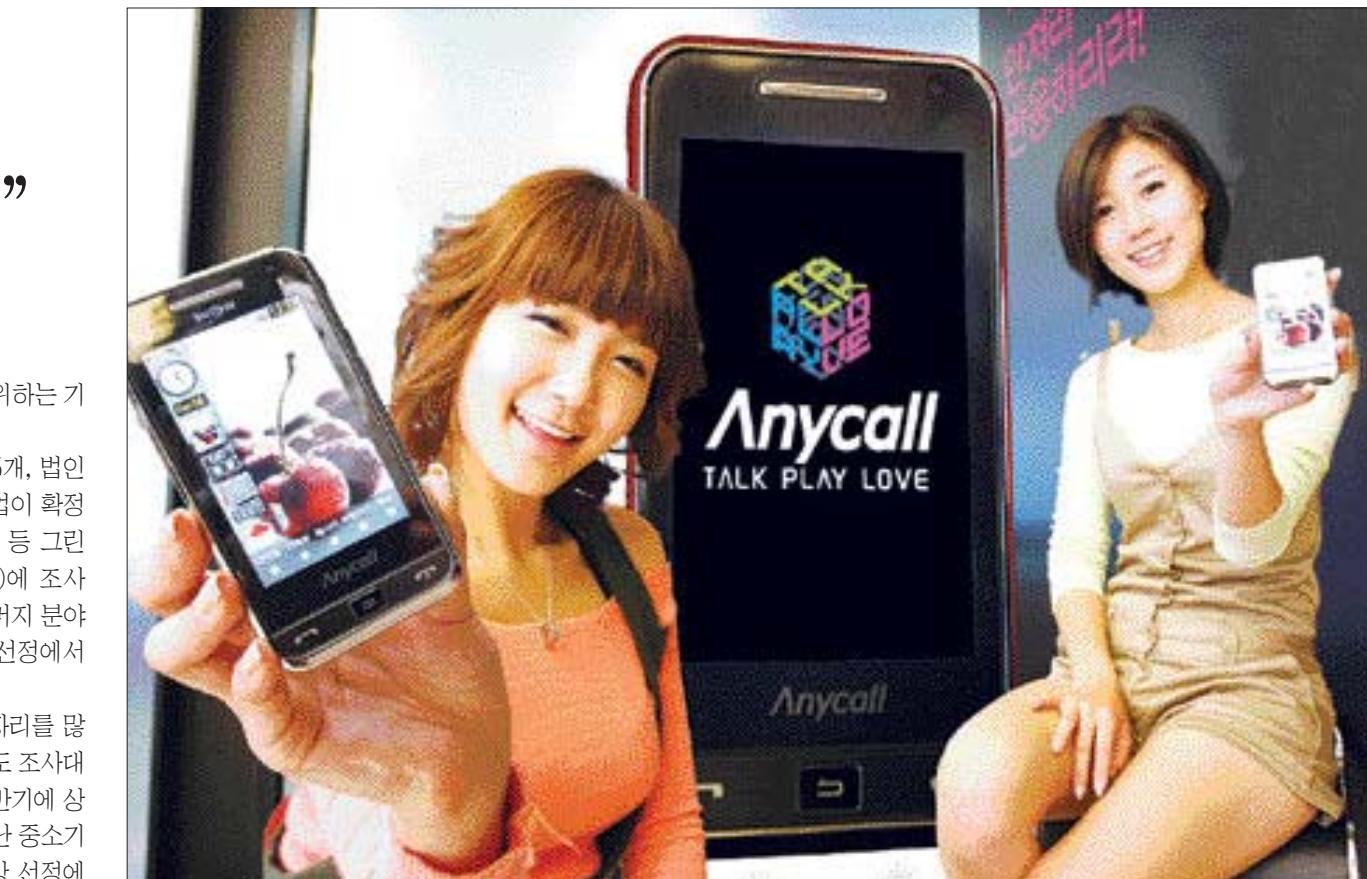
## “신성장동력 22개 산업 3년 간 세무조사 제외”

한상률 국세청장, 일자리 많이 늘린 中企도

국세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회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기준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 IT(정보기술)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삼성 ‘애니콜 핸티2’ 출시

삼성전자는 25일 하반기 전략폰으로 기존 핸티를 뛰어넘는 유저인터페이스(UI)와 기능, 디자인을 갖춘 터치스크린폰 ‘애니콜 핸티2’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핸티2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진동 외에도 ‘나만의 핸티’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진동을 직접 제작할 수 있고, 기존 15개였던 위젯 아이콘을 최대 50개로 늘려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

## 소득세 신용카드로 납부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방 골프장 그린피 인하

10월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과 최대 10만원의 소형화물차(1t 이하 및 경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도 시작되고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세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달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도 10월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0월 일괄신청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 중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를 입력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소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미스, 타워너 등 경형화물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 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 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는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천원), 교육세(3천600원), 농어촌특별세(3천600원) 등 1만9천200원의 세금과 3천원의 관광진흥기금이 면제돼 그린피가 인하된다.

함께 일합니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 및 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스텝스(주)           | 삼성전자 기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9/26 | 062-351-6052 |
| 자비씨 주식회사         | 소프트 운영관리/영업지원/마케팅 지원 공개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9/27 | 062-350-6556 |
| 주희인코리아           | [인천센터/공무/전기] 연구개발/신입 및 경력직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28 | 061-330-4523 |
| 주에이치아이코리아        | 사무관리직(구매/발주관리/경력/학원장교 우대)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29 | 062-944-7676 |
| ㈜워크존             | 현대캐피탈/광주증고자자점/금융사무원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9/29 | 02-208-8000  |
| ㈜한영정보통신          | SK텔레콤 대리점 정규직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400~1600 | 09/29 | 062-251-6972 |
| ㈜우리메가진           | 편집디자이너, 영업지원 정규직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9/30 | 062-955-2256 |
| 인포드림넷(주)         | [광주]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09/30 | 062-236-0217 |
| 기아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주) | 자동차 카 매니저/자동차 판매신입/경력/주부가능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0/02 | 062-574-8011 |
| ㈜유진시스템           | 기술지원팀/영업팀/관리팀 정규직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0/02 | 062-383-1108 |
| SHOBUI(주)        | 소프트 홈페이지 웹디자인 및 관리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0/03 | 062-653-2066 |
| 헤어킷또             | 미용실 카운터 매니저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0/03 | 062-222-2264 |
| ㈜동일철강            | 생산직(콜라보생산/철근가공) 사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10/03 | 062-944-8877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코스피 1500선 회복

연기금 연일 매수 … 환율 1160원 균접

코스피지수가 당시 연속 오르며 1,5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160원에 균접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65포인트(0.38%) 오른 1,501.63에 마감해 지난 8월25일 1,502.11 이후 한달 만에 1,500을 돌파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8.25포인트(0.55%) 내린 1,487.73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프로그램매매의 동반 ‘팔자’에 낙폭을 키워 1,470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프로그램매매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개인인 1천266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프로그램매매 영향으로 1천7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천282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연기금은 이날도 768억원을 순매수하며 9월 들어 ‘자자’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3.70원 오른 1,158.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0.50원 내린 1,154.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153.50원으로 밀린 뒤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1,16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은행권 中企대출 급감

신한, 감소세 전환 … 타은행도 규모 줄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눈에 띄어 줄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중소기업 대출을 452억원 줄여 대출잔액이 지난 7월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7개월간은 매달 평균 8천억원 이상, 모두 5조8천억원 가까이 확대했으나 지난 8월에는 속도를 늦춰 792억원 늘리는데 머물더니 이달 들어서는 아예 감소세다. 신한은행은 적정한 자산성장을 통해 운용 효율성을 높여 금융기관의 공공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은 휴가철이던 8월에 비해서는 지원규모를 늘렸지만 상반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국민은행은 9월 들어 중소기업 대출이 2천495억원 순증하고 기업은행은 5천34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천120억원, 6천332억원 각각 늘었다. 이는 8월 한달간 국민은행은 1천886억원, 기업은행 3천658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3천억원선으로 모두 1조2천577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많지만 상반기 이들 5개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월평균 3조8천억원씩 불었던 데 비해서는 상당히 조그마한 것이다.

/연합뉴스

## 대출-고졸 임금 격차

### 더 벌어졌다

기간당 30% 가량 차이

대졸-고졸 근로자간 임금격차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기준 대졸-고졸간 시간당 임금차이는 29.8%였다. 이들간 임금차이는 1980년 39.6%에서 서

1997년 19.5%까지 줄었으나 1998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고졸-전문대졸 임금차이는 1980년 12.3%에서 1996년 3.4%로 좁혀졌다가 2007년 8.5%로 커졌다. 중졸이하의 임금은 고졸에 비해 8~13% 낮았다.

산업별로는 건설과 제조업의 학력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문수·창고·통신업은 커졌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경기가 좋아질수록 확대되고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그 차이는 커지고 여성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